

도민 여러분께

2020년 4월 7일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

집중대책기간 (4/8 수 ~ 5/6 수)

- ◆ 금일, 정부 대책본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였습니다.
- ◆ 홋카이도에서도 여전히 유행이 종식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, 이 긴급사태 선언 기간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온 조치들을 확인하고 철저를 기하는 '집중대책기간'으로 재차 설정합니다.
- ◆ 도민 여러분께는 다시 한 번, 손씻기와 기침예절의 철저한 준수, 외출 시 3가지 사항의 확인,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는 '3밀(密)'을 피하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.

홋카이도지사 스즈키 나옴치

1 몸 상태는 양호한가? 감기 기운은 없는가?

○전문가들은 “증상이 가벼운 사람도 부주의하면 감염 확산의 주범이 될 수 있다”며 “젊은 층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”을 제기했습니다.



- ◆ 감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후통, 기침, 발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들의 열을 재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비누나 손 소독제로 손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은 물론, 기침할 때의 에티켓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


2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은 아닌가?

○전문가들은 “콘서트장이나 친구 집(술자리)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정시간 사람간 접촉이 있는 경우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”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



- ◆ 환기가 어렵고,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규모에 상관없이 이러한 장소에서의 모임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자택의 방 등 창문이 있는 환경에서는 가능하면 두 방향의 창문을 동시에 열어 건물 내 환기를 시켜주세요.



3 감염 위험을 줄일 방법을 알고 있는가?

○전문가들은 “증상이 없는 분들은 외부 활동을 할 때, 가급적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,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대화하는 등의 행동으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”고 지적했습니다.



- ◆ 대화할 때에는 손을 뺀어도 상대방이 닿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거나 자신으로부터 전파되는 비말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 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.
- ◆ 장을 볼 때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◆ 산책이나 조깅 등은 감염 위험이 낮습니다.

